



동방 경제포럼 소식

2017년 8월25일, 로시스까야 가제타

제 3회 동방경제포럼 구체적인 비즈니스 프로그램이 공개되었다

9월6일에 동방경제포럼 개막식이 진행되며, 개막식에는 유리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특사, 스바라주 인도 외무장관, 누구엔 반 빈 베트남 정치부위원이자 중앙위 비서 겸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 경제부문 실장 및 각국 공식 사절단 고위급 인사들이 기조 연설을 할 것이다.

동방경제포럼 비즈니스 프로그램은 '러시아 동방경제정책:향후 계획', '우리는 이웃이다:함께 사업합시다', '극동에서 사업하는 법', '극동: 새로운 삶의 질, 도전에 대응하면서' 등 4개의 주제별 블록으로 진행된다. 포럼의 일환으로 '러시아-중국', '러시아-인도', '러시아-한국', '러시아-일본', '러시아-아세안' 등 5개의 국가별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도 진행된다.

동방경제포럼의 메인 행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 신조 아베 일본 총리 그리고 바툴가 몽골 대통령이 참석하는 '극동-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면서' 본회의가 될 것이다.

<https://rg.ru/2017/08/25/reg-dfo/opublikovana-rasshirennaia-versiia-delovoj-programmy-tretego-vef.html>

2017년 8월25일, News.Rambler.ru

동방경제포럼 자원봉사자들이 업무 시작했다

자원봉사자들이 '인증' 기능 센터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이 인증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은 포럼 참가자 및 기술요원들에게 인증 배지를 배포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연해주, 사할린 주, 하바롭스크, 블라고베센스크, 아르항겔스 출신 5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 외에도 2017-빠제르부르그 국제경제포럼에서 활동한 상트 페테르스부르그 출신 자원봉사자들이 합류할 것이다.

<https://news.rambler.ru/education/37734958-volontery-vef-pristupili-k-rabote>

2017년 8월24일, 로시스까야 가제타

동방경제포럼 참가자들을 위해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 마련되어있다.

포럼의 일환으로 모스크바에서 프리젠테이션을 거친 각종 문화 및 스포츠 행사가 진행된다. '극동의 거리' 전시회가 동방경제포럼 문화 프로그램의 막을 올린다. 마린스끼 극장 연해주 무대에는 '잠자는 숲속의 미녀' 발레와 유리 바쉬메트가 지휘하는 '모스크바 솔리스트들' 실내 앙상블 콘서트가 연출될 것이다. 포럼 기간동안 블라디보스토크 시민들을 위한 국내외 그룹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스포츠 메인 행사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신조 아베 일본 총리가 후원하는 제 1회 카노 지고로 연례 국제 유도 시합이 될 것이다. 이외에도 아무르 호랑이와 극동 표범 보호를 위한 달리기 대회, 요트 대회, 극동 단체 체육대회, 하키 및 배구 친선 경기, 레슬링 및 테니스 시합이 열릴 예정이다.

<https://rg.ru/2017/08/24/reg-dfo/dlia-gostej-vef-podgotovili-iarkuiu-razvlekatelnuiu-programmu.html>

2017년8월23일, Regnum

2017-동방경제포럼에 참가하는 인도 사절단 규모는 포럼 역사상 최대규모가 될 것이다.

이번 인도 공식 사절단은 스바라쥬 인도 외무장관 겸 러시아-인도 정부간 위원회 의장과 시트하라만 산업 통상부 장관이 이끈다. 정부 대표들 외에도 약 30여명의 인도 주요 기업체 대표들도 사절단에 참가한다.

동방경제포럼의 일환으로 Invest India라는 인도 투자확대 및 유치부문인 러시아 전담국의 오픈식이 열릴 예정이다. 새로운 러시아 전담국은 러시아 투자자들과 관련된 업무를 맡게 되며, 러시아 투자자들에게 종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포럼 비즈니스 프로그램에는 '러시아-인도'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도 포함되어 있다.

<https://regnum.ru/news/2313033.html>

2017년 8월23일, 타스

베트남 사절단이 제 3회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한다.

응우옌푸쥑 베트남 정치부 위원이자 중앙위 총비서가 이끄는 베트남 사절단이 비즈니스 프로그램 행사에 참가한다. 이번 포럼에서 베트남 사절단은 국제 파트너쉽 및 극동에서의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http://tass.ru/ekonomika/4500085>

2017년 8월23일, Lenta.ru

일본 최대 포럼 대표가 2017-동방경제포럼에 참가할 것이다.

'사회에서의 과학과 기술' (Science and Technology in Society, 이하 STS) 포럼 측이 동방경제포럼에 참가할 것이다. 일본 정부에서 재무부 장관을 포함해 세번이나 요직을 지낸 STS 창립자이며 회장 오미 코지가 동방경제포럼 비즈니스 프로그램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https://lenta.ru/pressrelease/2017/08/23/india>

2017년 8월22일, 타스

동방경제포럼에서 신규 민간 조선소 프로젝트를 발표할 것이다.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입주업체인 '콤뽀지트노예 코라블레스트로예니예 (합성조선)'가 투자자들에게 신규 프로젝트를 소개할 것이다. 이 조선소에서는 국내 시장 및 아태지역 시장 수출을 위한 운송용 선박, 레저용 선박 및 어선을 대량 생산할 계획이다.

<http://tass.ru/ekonomika/4497242>

극동 국가 정책

2017년 8월27일, 로시스까야 가제타

유리 트루트네프는 '로시스까야 가제타'와의 인터뷰에서 극동 개발 2단계 시작에 대해 밝혔다.

극동 개발 2단계는 극동 주민의 삶의 질 개선, 주거, 사회, 교통 인프라 발전에 맞춰질 것이라고

유리 트루트네프 러시아 부총리 겸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특사가 밝혔다. 제 1 단계에서는 지역 발전 신규 조치 개발과 실현에 초점을 맞추었다.

현재 극동에는 85개의 신규공장이 가동에 들어갔으며, 111개의 공장이 건설 및 설계단계에 있다. 국영민간투자비율은 1 루블 대20 루블이다.

현재 '극동 헥타르'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극동지역에 신규 거주지역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유리 트루트네프가 밝혔다. 관련 안건들은 블라디보스토크 2017-동방경제포럼에서 열릴 대통령 주재 국가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https://rg.ru/2017/08/27/reg-dfo/trutnev-my-hotim-chtoby-na-karte-dalnego-vostoka-voznikali-novye-goroda.html>

2017년 8월23일, 콤소몰스까야 프라우다
극동에 18번째 선도개발구역이 조성되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는 시코탄 섬에 '쿠릴' 선도개발구역 조성에 대한 정부령에 서명했다. '쿠릴' 선도개발구역은 어업, 청정에너지, 지하자원 발굴 분야 투자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지역이 될 것이다. 현재 러시아와 일본은 이 지역에서의 공동 경제 활동에 대한 협상은 진행 중이다.

<https://www.kp.ru/daily/26721/3747346>

극동 개발의 새로운 메커니즘 - 우수 사례

2017년 8월23일, 타스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투자자가 블라디보스토크에 물류 센터를 완공했다.

'메가'회사는 1만3천 평방미터에 달하는 면적의 물류센터를 완공했다. 현재 이 업체는 건물 가동 준비 단계에 있다. 총 투자액은 7억1천7백만 루블이다. 이 물류센터는 현대 장비와 자동 소방시스템, 창고 시설 내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난방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http://tass.ru/v-strane/4500282>

참조 자료: 2017-동방경제포럼 운영기관인 '로스콘그레스'재단은 러시아 최대 국제회의 및 전시회 조직 운영기관이다. '로스콘그레스'재단은 각종 국제회의, 전시회, 시민행사 조직 및 운영을 통해서 러시아의 이미지 강화 및 경제 잠재력 개발 도모를 위해 2007년 설립되었다. 재단은 이들 행사의 내용을 구성하고, 업체 및 기관에 컨설팅, 정보제공, 전문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국제 경제 문제를 연구하고, 분석하며, 이슈화하는 일을 하고 있다. 재단은 몬테비데오로부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다양한 연간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 행사에는 세계 유력 기업가, 전문가, 매스미디어 관계자들, 정부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나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프로모션하는 데 최고의 여건을 만들어 주며, 이외에도 기업의 사회기여활동 및 자선 프로젝트 조성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